

적십자의 고유기능과 창의적인 봉사

오늘날 전 세계에는 179개국 적십자사가 있다. 이태리 통일전쟁(솔페리노 전투)을 배경으로 1863년에 시작된 적십자운동은 국제적십자와 각국 적십자사가 140년에 걸쳐 발전하는 동안 그 사업을 전쟁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화시에도 천재지변의 이재민 구호를 비롯해 병원, 혈액, 안전, 보건, 의료, 사회복지, 청소년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도 지난 수세기이래 적십자만큼 인류동포의 고난을 덜어 주는데 크게 공헌해온 단체는 달리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노벨평화상을 앙리뒤낭이 수상한 이래 4번이나 평화상을 받았다.

적십자 정신의 기본요소는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변함없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할 인도주의 정신이며, 그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깃들어 있는 자비와 인류애에 근원을 두고 있다.

또한 '인류가 사는 곳에 재난이 있고, 재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는 표어가 말해 주듯이 적십자는 인간사회에 예고 없이 닥치는 재난의 불행에 대비해 존재하고 그 재난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봉사하는 운동이다.

적십자에는 그 이념과 조직 및 활동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인도, 공평, 중립, 독립, 봉사, 단일, 보편의 일곱 가지 원칙인데, 그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인도'의 원칙이다. 그 밖의 원칙은 모두 그 인도적 정신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요, 태도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적십자의 인도주의는 보편적인 인류애와 인간존중, 차별 없고 공정한 구호와 봉사,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상호이해와 평화의 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류애와 인간존중의 정신은 적십자운동의 바탕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인간의 생명과 인권은 다같이 존귀한 것이므로 차별없이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인간의 생명은 그 존엄성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기준이 되어야 하며, 인류적 양심과 더불어 외경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존중, 인간성에 대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신이 곧 적십자 정신의 근간을 이루는 인류애요 인도주의 정신인 것이다.

둘째, 차별없는 구호와 봉사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태도요 자세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중립과 공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적십자는 본연의 인도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언제 어디서나 재난 당하고 고통받는 대상이 있을 때는 오직 그 고난의 경중과 완급에 따라 아무런 차별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구호의 손길을 뻗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앙리뒤낭이 전쟁터에서 쓰러진 병사들을 보고 인류애에서 우리나라는 뜨거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잊을 수 없어, 온 세상을 향하여 「인간은 누구나 다 형제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차별 없이 구호해 주어야 한다」고 외치며,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돌보아준 정신에서 이념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평화요소의 증진과 고난구제를 통한 인류의 단합은 적십자운동이 추구하는 가장 큰 꿈이다.

인류의 불행 중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것은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으로 서로 갈라진 종족과 국가, 종파 및 이념과 체제 사이의 오해와 이해관계로 말미암은 적대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과연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싸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 인류적 양심과 인간의 공통된 희망에 배치되는 것이다. 적십자는 그 본래의 범인류적 인도주의 운동과 차별 없는 봉사활동을 통해, 인간성과 인류애를 환기시키고 실천해 평화를 증진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우리 나라는 기아와 질병 같은 절대빈곤에서 오는 고통이나,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는 적어진 반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새로운 재난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고 소외계층이나 불우 청소년들의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남북분단으로 일천만 이산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곧 그 어느 때 보다도 적십자의 손길이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적십자는 고유한 인도적 이념과 원칙을 올바로 준수하며, 그 고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의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이산가족의 슬픔과 식량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며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의와 사랑, 자비와 평화의 이상에 역행하는 현실이 있을수록 적십자의 존재 의의와 사명은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72